

2024년 10월 6일(주일) 제1703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년 사명자대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2024년 사명자대회 발대식 오늘 찬양예배 시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4년 사명자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명자대회 주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이며 성구는 히 10:24-25입니다.

2024년 사명자대회는 크게 1.[교육] 말씀 사모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2.[전도] 복음전도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3.[구제] 예수 사랑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입니다.

이번 사명자대회 중 나눠드린 기도카드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6일(토) 19시 본당에서 금난새 지휘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2024 사랑 나눔 장터 사랑의 온도계 시작

10. 18(금)부터 10. 19(토) 양일간 열리는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의 일환인 '사랑의 온도계'가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당회원, 바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계 수은주를 올리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2024 '사랑 나눔 장터' 기증품 기다려

기증품 접수 : 104호

10. 18(금)부터 10. 19(토) 양일간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울교회 바자 정신을 아름답게 계승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나눔 장터입니다.

이를 위해 바자 본부(본부장 : 김승록 장로)

에서는 성도 여러분의 기증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중품, 애장품, 그리고 중고 물품 등 사용 가능하나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임 교역자

- 초등부 교육전도사 -



조하영 전도사

교역자들의 부서이동으로 초등부를 담당할 조하영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그동안 초등부를 담당하신 최종국 목사님은 청년부를 맡게 됩니다.

서울강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10월 8일(화) 소망교회 오전 9시

서울강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가 10월 8일(화) 소망교회에서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박미라, 손주찬 전도사가 목사 안수(오후 4시)를 받습니다.

이번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 회원 : 손달익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목사, 장로 총대 :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김광태 백도환 장로입니다.

실천되는 신앙

약 1:12-18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가 삶의 괴리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론(Theory)과 실천(Praxis)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는 도덕적이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식인에게 실천의 문제가 생기면 위선적이고 신뢰와 존경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공적인 자기(Public Self)와 실제 자기(Real Self)라는 두 가지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자기 발전이 더디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자기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불안해 합니다.

‘코람 데오, 또는 신행일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지만 구호를 외친다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호만 자주 말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도덕적 혼수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흠어진 12 지파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흠어진 12 지파는 사방에 분산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적자로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 지배적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에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스스로를 정통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실천을 소홀히 여기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시험 당할 때

영국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애환과 시련이 있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시험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나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그네 된 당시의 흠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매우 심각한 삶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가족들과 지역공동체에서 추방되었고 각 가문에서 파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정부가 불법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시민 권리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언제쯤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린 자녀들의 미래는 어찌해야 할 것인지 등 미래는 아무런 길이 없어보였습니다.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처형되기도 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나 잔혹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방법도 길도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 유혹이 찾아올 때

창 22:1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test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거두어가시는 시험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이 역시 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지를 검증하시려는 시험이었고 욥은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유혹으로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본문은 우리가 멸망하는 시험에 빠져드는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14-15절),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의 정당성으로 유혹합니다. 욕심이 정당한 경쟁이며 세상의 일반적 원리이며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섬기는 길을, 세상에서의 칭찬과 명예가 안개 같은 것임을 가르치면서 이름도 빛도 없는 자랑하지 않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도 역경도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3. 하나님만 의지할 것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16-17절) 세상을 의지하고 타협하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6절)고 일갈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사라질 안개 같이 무력한 자기 능력과 신념에 목을 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너지고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하고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6-8절).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도 역경도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 27:3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시 27:3). 염려도 불안도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험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두 번째 새가족환영회가 지난 주 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열렸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가족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손달익 위임목사님은 5주의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새가족환영회에 오신 분들과 새가족을 위해 기도와 교육과 돌봄으로 헌신하는 새가족위원회의 차영도 장로님과 담당 교역자이신 박미라 전도사님 이하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며 서울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성실하게 믿음생활을 하시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시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분들이 소속된 각 교구의 교구장, 간사, 다락방장에게도 새가족분들을 잘 섬기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난 주일 1, 2부 설교를 하셨던 엠마누엘 세이볼트 목사님 일행과 케냐 선교사 두 분이 참석하시어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현재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인 엠마누엘 세이볼트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열렸던 109회 예정통합 정기 총회에 참석차 한국을 오셨다가 프랑스 교회의 부흥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서울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2008년 당시 위임 목사님이신 고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김치세미나를 개최하시며 프랑스 목회자 30여 분을 초대해 주셔서 이때 서울교회를 방문하셨던 프랑스 목사님들이 김치세미나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하여 프랑스 개척교회를 섬기며 그 후 프랑스 개척교회의 중진들이 되었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석자 중 한 분은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새가족환영회와 같은 서울교회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새가족분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열매를 맺어 오시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큰 상처를 입고 눈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 오셨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사연은 달라도 이날 한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매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울교회에 모여 믿음의 울타리를 만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힘 없이 기도하신 새가족부 교역자님, 교사님들께 또 다시 감사드리며 모든 일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듯 그 어떤 역경에도 결국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울교회에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재 및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정승균 안수집사

****김치세미나(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Seminar)**는 현지 목회자를 재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타 문화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자국복음화를 위한 영적 각성과 신학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계적인 신학자를 초빙하여 성경적 교회성장의 원리를 교육하고 한국교회를 시찰하게 하며 자체적으로 연설과 토론 등을 통해 자국복음화를 위한 전략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서울교회가 설립 이듬해인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문화권을 달리하여 섬긴 국제신학세미나입니다.

(코람 데오 94page에서 발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새가족환영회!!!



장역만 성도
(1교구)

교우 간에 아끼며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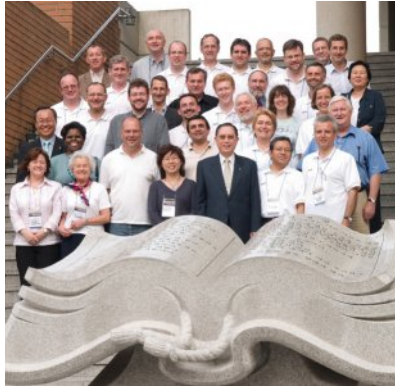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 한 없이 빛나는 웃음꽃은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티끌마저도 다 걷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라 굳게 믿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새가족 교육 담당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의 영향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만나와 같은 성찬으로 은혜의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박미라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서 깨우쳐 새기며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시고 봉사하시는 새가족부로 인해서 서울교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굳게 믿으며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새가족부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주일 1, 2부 예배 시 현재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이신 엠마누엘 세이 볼트 목사님 설교가 있었습니다.
 ◀▲ 2008년 제16차 김치세미나(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Seminar)에 참석한 프랑스 교역자들

새가족환영회를 통한 진짜 교인된 기쁨



김혜령 성도
(1교구)

새가족 교육을 감사히 마친 기쁨이 지나자, 이번에는 환영회를 열어 주신다는 소식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29일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2부 예배 후 환영회 장소로 들어섰을 때의 감격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새가족 교육 때 뵈던 섬김의 교사분들의 환한 미소와 반겨 주시던 음성들, 아름답게 꾸며진 멋진 방 안의 풍경들, 맛나게 푸짐히 차려진 일용할 양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환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고 송구스런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정해진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교구목사, 담당 장로, 간사, 교사,

다락방장 분들이 옆에 계셨고, 무엇보다도 이 장소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은혜롭게 흘러나오는 피아노 찬양곡을 듣고 있는데, 손달의 위임목사님께서 입장하심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침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목사님 일행의 방문으로 같이 동석을 해 주셔서 더 빛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서울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안도감도 들면서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교회와 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를 해주신 새가족부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박미라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 내용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몸된 서울교회를 위하여 순종과 충성으로 못다한 섬김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역장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동역자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글을 빛낸 성경번역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2019년 통계로 세계 60여 개국에 180여 개의 세종학당이 생겼고 그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글의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라고 했고 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와 달리 표음(表音)문자로서 뜻글이 아니고 소리글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한글이라 이름했는데 그 뜻은 큰글/으뜸글/하나뿐인 글/한민족의 글이라고 한다. 1446년 9월에 반포(頒布/널리 펴서 알림)되었으나 450여 년간 고난과 시련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했다. 조선시대 소위 선비들과 양반계급에서는 언문(諺文/천한 글, 상 말)이라고 하여 천대하였고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하여 숭상하며 한글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이어서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8년에는 우

리에게 한글 사용금지령과 함께 창씨개명까지 강요당했으니 한글은 창고에 갇혀 수난의 세월을 지나야만 했다. 그 이전 조선시대 연산군은 1504년에 의서와 농서에만 한글을 허용하여 보급의 통로가 한정되어 있었으니 발목이 잡혀 있었다.

1877년 영국선교사 “존 로스”가 만주 산둥반도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중 한국인 상인 이용찬에게서 한글을 배워 한글판 성경번역을 10년(1877-1886)에 걸쳐 완성했으나 온전치 못한 번역이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띄어쓰기를 적용하게 되어서 진일보하게 된 것이다.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배재학당 교수) “호머 헐버트”가 띄어쓰기를 적극 권장하여 1896년에 “독립신문”에 적용한 것이 한글 신문의 효시(嚆矢)였다고 한다.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협력하여 신구약 성경번역에 몰두한 결과 1898년에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전권을 한글판으로 출

간하게 되었고 이어서 1911년 4월 2일 신구약 전권의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성경을 통한 한글 보급은 일제의 우리 민족말살에 맞서 저항하는 한민족의 열이 되었고 온 국민의 정신무장의 지렛대가 되었다. 1930년경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70%를 상회하고 있었을 때 이토록 힘겨운 선교사역으로 한글을 보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토굴 속에 살아온 가련한 우리 민족의 눈을 뜨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님들의 주도로 학교, 병원, 성경 보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멸시천대 받고 갇혀있던 한글을 햇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우연이나 지능이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70여 년 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시어 선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실상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24강 : 사도신경 - 교회

교회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특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회집단은 1차적 집단과 2차적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집단은 생득집단이라고도 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친밀한 사람들의 집단은 대체로 1차적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2차 집단은 이익집단이라고도 하며, 인간 관계가 부분적이고 공식적으로 맺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2차적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1차 집단이 생득집단이라고 하지만, '1차적'이라는 의미가 사람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뜻과 가장 친밀한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1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에베소서 5:25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도 요한은 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5문 :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대상과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신자가 가진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받아서 주는 것, 즉 유통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실제로, 현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범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교제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교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제는 시간적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러므

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크든 작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되지 않든, 필요성을 느끼든 못 느끼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교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등 사회 과목 교과서에 언급된 용어를 사용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학습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공동체에 적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과 교회 예찬으로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른바 "학습과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본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진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 됨에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 성장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성장에는 고통, 곧 성장통이 따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2교구 김동준 집사 이신혜 집사
1교구 이신영 집사, 이신재 성도, 류리
(범사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일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교역자 동절기 목사복 착용

오늘, 10월 6일(주일)부터 주일예배에 동절기 가까운을 입으며 교역자들은 동절기 목사복을 착용합니다.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29	자원자	스데반회	10.2	도르가, 루디아, 뵈뵈
10.6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9	한글날
10.13	자원자	바울, 엘리야	10.16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0.20	자원자	모세	10.23	리브가
10.27	자원자	이사	10.30	권사회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의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사랑의 나눔 장터를 준비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제4대 위임목사님 청빙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3. 복음 위에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정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10월7일	월	막 1-3	왕상10	빌1	겔40	시91
10월8일	화	막 4-5	왕상11	빌2	겔41	시92,93
10월9일	수	막 6-7	왕상12	빌3	겔42	시94
10월10일	목	막 8-9	왕상13	빌4	겔43	시95,96
10월11일	금	막 10-11	왕상14	골1	겔44	시97,98
10월12일	토	막 12-13	왕상15	골2	겔45	시99-101
10월13일	주일	막 14	왕상16	골3	겔46	시102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홍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